

ESCO 자금지원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호 기자(w3master@energycenter.co.kr)



정부는

지난 10월, 2000년도 예산(안)설명회에서 내년도 ESCO사업 지원금을 924억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0~2003년간 총 5,150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600천TOE(19백억원상당)의 에너지절감을 ESCO사업을 통해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에너지절약 투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에너지절약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의 자금부담과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절약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ESCO사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융자 지원 자금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담보 및 부채 해소를 위한 신용대출 및 매출채권 팩토링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ESCO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함으로써 시장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ESCO제도의 정착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ESCO업체가 기술능력을 갖추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과 기술세미나 등을 개최, 보다 전문화 되고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불안감이 심각한 편입니다.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이행을 위한 2001년도의 에너지정책 목표는 무엇입니까?

최근의 고유가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시장기능에 의한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지식정보화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혁신으로 근본적인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를 실현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물·수송 부문별 에너지절약 프로

ESCO 전업기업의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과 담보여력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신용대출 기관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ESCO자금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 추진시 예산이 부족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의 도입과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을 통한 선진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대체에너지, 해외자원 개발 등 에너지사업 다양화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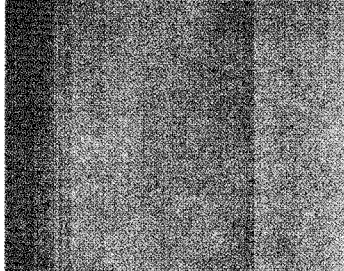
일반 에너지사용자들로부터 ESCO와 VA 사업이 유사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 비교해 주신다면요?

먼저 자발적협약 제도란(VA : Voluntary Agreement)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이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기업은 목표설정, 이행방법 등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비규제적 시책입니다.

반면, ESCO제도는 제3자의 에너지사용 시설에 ESCO업체가 선(先)투자한 후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형태입니다. ESCO제도와 VA는 사업주체가 다르나 상호 연관은 있으므로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의 ESCO사업이 ESCO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민간부문이나 산업분야에서의 ESCO사업 활성화가 정책목표 달성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나 보완책은 없는지요?

잘 아시다시피 ESCO사업은 우리와 사회



제도가 유사한 일본에서도 아직 실행되지 않고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훨씬 앞서 정착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차분히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부문 사업확대는 시장조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므로 금년에도 기존의 중앙부처 위주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으로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2000년 10월말 현재 공공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액이 369건에 227억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ESCO 전업기업의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과 담보여력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신용대출 기관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ESCO자금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 추진시 예산이 부족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ESCO협회에 바라고 싶은 바가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ESCO업체에 대해 진단 전문기술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복합기술분야로 사업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ESCO협회를 중심으로 ESCO제도가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국가에너지절약에 큰 도움이 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